

# 사회·문화 출제 분석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Ver. 2025

HEADMASTER

저자: 한정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0.03%
- 수만휘 'headmaster' 닉네임으로 활동 중
- S모 재종 사회·문화 콘텐츠팀 활동 경력
- 오르비 Hesco 사회·문화 모의고사 집필
- '서울대 1등급 노트' 저자


Instagram: @head\_ma\_study

팔로우하시면 매일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eagle5120@naver.com](mailto:eagle5120@naver.com)

# 1번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전자 현미경으로 모기를 확대해보면 다리에 미세한 털이 있다. ㉡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미세한 털이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 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에 발이 빠지는 것 같아 무서워서 달아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오일은 ㉣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p>
---	--

- ①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정답률: 50%

자연 현상과 사문 현상

1번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험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문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ㄷ의 판단에 있죠.

'특수 오일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 특수 오일은 다름 아닌 인간이 만든 물건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이 다들 같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 다시 말해 '인간이 제조한 무언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의 상황'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의 기출에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평가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자연 현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출제가 된다면 자연 현상으로 여러분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위 문항에 대해서는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어쨌거나 시험을 출제하는 것은 평가원이니, 평가원이 제시한 판단 양식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제조한 무언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의 상황'에서 그 현상을 자연 현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문항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 2번

2.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뿐입니다.

—<보 기>—

- ㄱ.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ㄴ.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 ㄷ.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ㄹ.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률: 62%

개인과 사회의 관계

이 문항 역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다시 말해 위 제시문을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 나타난 제시문으로 판단했다면, 전적으로 '발체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에 그 이유가 있겠죠.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에서 첫 줄이 끝나고, 여기까지만 읽고 판단을 하면 사회 실재론적 관점이 나타난 제시문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끔 이 문항은 출제되었고, 바로 그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딱 저 내용에서 첫 줄을 끝낸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출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최근 국어 기조와 같이 발체독을 저격할(21수능 국어 '평등권' 문항이 생각나는) 문항으로, 항상 제시문을 판단할 때에는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비단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이건 수능을 구성하는 모든 과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니 말이죠.

3번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약성 민원인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해야 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취미 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갑의 배우자인 한식 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다.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은 성취 지위이다.
- ② ㉡은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 ③ ㉢은 한식 요리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 ④ ㉣과 달리 ㉤은 역할 갈등이다.
- ⑤ ㉥은 갑의 재사회화, ㉦은 을의 예기 사회화에 해당한다.

정답률: 81%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크게 주목할 점 없는 무난한 문항이나,,시험이 출제된 이후 사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만들어져 버린 문항이기도 하죠.

'약성 민원인'은 지위가 아닌데, '민원인'은 지위인가? 에 대한 논란이 위 문항에서 발생했고, 한 동안 여러 수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약성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지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문항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제가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영화배우 갑은 극중 인물과의 동일시를 위해 극중 인물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몸이 불편한 화가 역할을 위해 촬영 전부터 휠체어에서 생활하거나 북미 지역의 원주민 역할을 위해 ㉡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영화 속 원수인 상대 배우에게 실제로 적대감을 드러내 동료에게 ㉢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갑은 돌연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는 ㉥ 영화 제작사 임원 자리 제안을 거절하고 화가가 되겠다고 ㉦ 예술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 ① ㉠, ㉣은 모두 갑의 성취 지위이다.
- ② ㉡은 ㉠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 ③ ㉢은 갑의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
- ④ ㉣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 ⑤ ㉥, ㉦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20학년도 고3 9월, 다시 말해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된 해당 문항은 '배역'은 지위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물어본 1번 선지는 정답 선지보다 더 높은 선택률을 기록한 함정 선지가 되었죠.

지위를 통해서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는 올해 수능특강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 지위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민원인', '배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0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위 문항에서 '배역'을 지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끔 한 이유이자, 위 3번 문항에서 '민원인'도 지위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민원인'과 '배역'은 개인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있으며, '배역'에 대해 평가원은 이미 지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문항을 출제한 적 있기에 '민원인'도 지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앞에서 제시한 1번 문항의 ㄷ 선지에 관한 내용과 같이 평가원이 이미 제시한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고, 해당 기준에 의하면 '민원인'은 지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니, 딱 '참고' 정도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4번

4. 자료 수집 방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중 하나임.)


  
 연구자 A


'유치원생의 교우 관계와 자아 존중감' 연구를 위해서 A, B, C, D 중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연구자 B


  
 연구자 C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 A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 D


  
 연구자 E


네, 좋습니다. 아동들이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구자 F


  
 연구자 G

아동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아 B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들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연구자 H

  
 연구자 I

그렇게 하면 C를 활용한 양적인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몇 명의 아동들에게라도 D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분석하려면 대화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 J

- ① A와 달리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② C에 비해 A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 ③ D와 달리 B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 ④ B와 C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C와 D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 인가?'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다.

정답률: 78%

자료 수집 방법

정답률은 상당히 높으나,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9평을 처음 풀어볼 때, 위 문항은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출제한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 형식은 작년 수능 6번 문항에서 평가원이 재미를 본, 다시 말해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형식의 변형이고, 무엇보다 위 문항의 정답은 1번이었기 때문이죠.

1번이 정답인 고난도 문항의 파괴력은 이미 23수능 10번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저는 이것이 평가원이 의도한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작년 9평 6번과 수능 6번의 관계와 같이, 위 문항은 수능에 가서는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진 형태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 문항에서는 A~D의 네 가지 자료 수집 방법만 물어봤으나, 수능에 가서는 다섯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모두 물어보는 형태로, 그리고 위 문항에서는 연구자 갑과 을이 제시한 내용이 모두 옳았으나 수능에 가서는 옳지 않은 내용을 일부러 제시한 뒤 정정해 주는 형태 정도가 당장 생각나는 발전 형태이긴 하네요.

아무쪼록 발전이 되어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문항이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번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A국 65세 이상 노인의 ㉠ 사회 관계망이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대한 ㉡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단체 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갑은 전국에서 ㉢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 소비는 지난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가족 관계망은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로, 지인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 이외에 평소 교류하는 사람의 수로,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로 파악하였다. ... (중략) ...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문화 소비와 지인 관계망 사이에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 기>

- ㄱ.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ㄴ. ㉢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
- ㄷ. ㉣로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률: 62%

연구 사례 분석

ㄱ 선지의, ㄱ 선지를 위한, ㄱ 선지에 의한 문항입니다. ㄴ 선지와 ㄷ 선지의 판단은 매우 쉬웠으나, ㄱ 선지 하나 때문에 문항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사례이죠.

개념의 '세부적 분류'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판단, 이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정의, 다시 말해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를 떠올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ㄱ 선지에서 제시한 사례는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재정의'한 것이 아니기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바로 위 문항에서 얻어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6번

6.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을: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 계층적 지위는 개인의 출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갑,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 ⑤ 을,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률: 7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무난한 기능/갈등/상상론 판단 문항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 아닌 기능론이라는 점 외에는 크게 얻어 갈 점 없습니다.

## 7번

###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낮선 국가를 여행하다가 차별을 당하면, 그곳에서 만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 집단의식이 형성되면 집단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편, 집단의식은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수단적 접촉을 통해 유지되는 ㉤ 집단의 구성원은 사회적 관계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편입니다.

- ① ㉠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강화된다.
- ② ㉡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집단에 대한 동질감 때문이다.
- ③ ㉢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④ ㉣의 사례로 이익 집단, 시민 단체를 들 수 있다.
- ⑤ ㉤은 주로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률: 87%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집단 단원에서 등장한 신유형 문항이나, 형태 자체가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기에 정답률 역시 높았던 문항입니다.

각 선지에서 물어본 사회 집단이 정확히 어떤 사회 집단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당 사회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으로, 크게 주목할 점은 없습니다.

## 8번

8.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 완충지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늘어난 대륙 간 항공망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교류의 증대였다. 바이러스의 이슬비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린다.

- ①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된다.
- 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 ③ 국가 간 교류 증대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 ④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정답률: 93%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이전 기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제시문 독해 문항으로, 정답률만 봐도 알 수 있듯 크게 얻어갈 점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형태의 문항은 '독해 능력' 그 자체를 요구하기에, 특별히 알고 가야 할 '지식'적인 측면은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 9번

9. 다음은 일탈 이론 A~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임.)

질문	답변		
	갑	을	병
A는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예	아니요	예
B와 달리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B와 달리 D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아니요	예	예
B, D와 달리 A, C는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예
채점 결과	2점	㉠	3점

\* 교사는 질문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을 부여함.

- ① ㉠은 '1점'이다.
- ② A의 사례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B의 사례로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④ C의 사례로 프로 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D의 사례로 상승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률: 66%

일탈 이론

이번 9평을 처음 풀어 본 후, 저는 위 문항이 최고 오답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 을, 병이라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한 데다 관련 개념은 A~D의 4개가 있고, 무엇보다 정답이 1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순수 난이도는 매우 높은, 아마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채점형 문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나 저러한 정답률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위 유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고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겠죠.

이러한 채점형 문항에서는 '케이스 분류'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 각 경우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따져 나가야 할지가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죠.

A~D가 각각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관련 개념이 A, B만 있었다면 두 번의 케이스 분류만으로도 바로 해결이 되었을 것이나, 위 문항은 4개의 개념이 등장했기에 케이스 분류를  $4! = 24$ 번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남은 케이스 분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각 학생의 답변 중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병은 4점 중 3점을 얻었으니 한 개의 답변만 옳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위 4개의 답변 중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고가 되겠습니다.

갑의 점수가 2점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병의 답변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갑과 병의 답변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케이스 분류', 위 문항에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 1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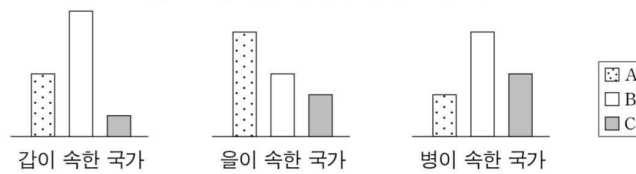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는 연령이 50세인 갑~병의 사회 이동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단,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며, 다른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대 간 이동은 (가)와 (다), 세대 내 이동은 (나)와 (다)를 통해 판단한다.

<갑~병의 사회 이동 양상>

구분	갑	을	병
(가) 부모의 계층	상층	중층	하층
(나) 20년 전 본인 계층	A	B	C
(다) 현재 본인 계층	B	C	A

<갑~병이 속한 국가의 현재 계층 비율>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임.

- ①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 ② 을과 병에게는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 ③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
- ④ 을이 속한 국가는 갑이 속한 국가에 비해 계층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⑤ 병이 속한 국가는 을이 속한 국가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정답률: 77%

사회 계층 구조

도표가 아닌 듯 도표인 듯, 개념과 도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갑이 속한 국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는 단서를 활용해서 A, B, C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그 이후 크게 어려운 지점은 없는 문항입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의도적으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문항입니다.

11번

2. 표는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	㉡
(가)	㉡	㉠	㉡

\* ㉠과 ㉡은 각각 '예'와 '아니요' 중 하나임.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② C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기초 연금 제도가 A에 해당한다면, B는 사회 서비스이다.
- ④ B가 공공 부조라면, A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가)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률: 97%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률만 봐도 알 수 있듯, 매우 무난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항입니다.

위 제시문을 통해 '문화 상대주의'를 도출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는 '해당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이 과목을 공부했다면 당연히 해당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 12번

12.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명(明)조의 시작은 고요한 겨울날 같았다. 왕조의 전반기는 질서와 안정 그 자체였다. 왕조의 겨울은 얼마 후 시끌벅적한 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소박한 농경 사회의 안정성은 투기적 상업에 자리를 빼앗겼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농경 사회의 토대는 무너져 내렸다. 가을에는 은의 유입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부자 대 빈자, 상인 대 농민, 이윤 대 도덕이 대립하면서 참혹함이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는 질서를 회복하며 안정을 향해 나아갔다.

### <보 기>

- ㄱ. 사회의 퇴보나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
- ㄴ. 단기적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 ㄷ.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ㄹ.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인 대응이 어렵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률: 89%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이론

역시 평범한 진화론/순환론 문항입니다: 명이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점만 캐치하면 바로 순환론의 관점이 나타난 제시문임을 파악할 수 있죠.

13번

1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 연합이었다.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 분노였다. 전쟁을 반대하는 ㉠ 평화 운동 집회에서는 형제애와 연대의 언어가 넘쳐흘렀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 태도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했고 여성이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다. 남성들은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었지만, ㉡ 남성 우위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했다.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러한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 반전 운동을 넘어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 여성 운동으로 발전했다.

<보 기>

ㄱ. ㉠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ㄴ. ㉡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이다.  
ㄷ. ㉢은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다.  
ㄹ. ㉣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률: 89%

사회 운동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했던, 사회 운동을 다룬 문항입니다.

제시문 독해 문항이기에 특별하게 '알고' 가야 할 지점은 존재하지 않으나, 1~5번 선지가 각각 2/2/2/3/3개의 ㄱ~ㄹ 선지를 달고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으면 정답률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하네요.

## 14번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공유성, 변동성, 축적성, 학습성 중 하나임.) [3점]

교사: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3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갑: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전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을: 과거와 현재의 국어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 것을 보면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은 지난 시간 무가 발표한 B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병: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라는 점은 D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교사: 을과 병은 해당 속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잘 했습니다.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이므로, 다음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속성이 잘 부각되는 사례로 다시 발표해 봅시다.

- ①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하는 속성은 A가 아닌 B이다.
- ② 문화가 경험과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됨을 의미하는 속성은 D가 아닌 C이다.
- ③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함을 의미한다.
- ④ 정이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문화가 세대를 전승하며 더욱 풍부해짐을 의미한다.
- ⑤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률: 78%

문화의 속성

4번 문항과 매우 많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5개의 개념이 존재하는 단원, 하지만 그 중 4개만 출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 답이 1번인 것까지, 의도적인 출제가 아니라고 보기에 너무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죠.

그렇기에 위 문항에 대한 제 분석 또한 4번 문항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위 문항 역시 5개의 개념 전부가 출제되고, 갑~병 모두가 잘못된 진술을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지금의 높은 정답률에만 매몰되어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실수로, 철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 15번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A와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중복 수급자 비율은 t+30년이 t년에 비해 50% 감소하였고,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30년이 동일하다.

<갑국의 A, B 수급자와 비(非)수급자의 비율>

(단위: %)

구분	t년	t+30년
A 수급자	70	77
B 수급자	26	①
비(非)수급자	14	15

\* 비(非)수급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사람  
 \*\* 중복 수급자: A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B 수급자인 사람

- ① ①은 t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t+30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②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t+30년이 t년에 비해 8% 감소하였다.
- ③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과 t+30년이 동일하다.
- 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⑤ t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30년 비(非)수급자 수의 2배이다.

정답률: 37%

사회 복지 제도

분명 풀면서는 올해 6평 15번이랑 난이도가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했는데,,생각보다 매우 낮은 정답률에 절 많이 놀라게 한 문항입니다.

37%의 정답률도 메가스터디 기준이고, EBSi 기준으로는 겨우 21%의 정답률을 기록했죠: 심지어 답이 5번이었는데도!

사실 위 문항은 평가원 기출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신유형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벤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평가원' 문항은 모두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 중복 수급자가 주어진 형태만 있었으니 말이죠.

사실 넓게 보면 작년 수능 15번 문항도 위의 형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있긴 하나,,일단 최초의 접근은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 중복 수급자의 측면에서 하도록 출제가 되긴 했었죠.

그러나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당장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당장 두 달 전 치러진 7월 모의고사의 15번 문항부터가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 중복 수급자의 형태를 완벽하게 벗어나 출제가 되었죠.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A, B로만 구성되며, A, B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갑국은 인구가 동일한 (가), (나)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90%, (나)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80%가 사회 보장 제도 수급자이다. 표는 갑국의 지역별 사회 보장 제도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단위: %)

구분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 대비 A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해당 지역 전체 수급자 대비 B만 수급받는 인구 비율
(가) 지역	65	25
(나) 지역	71	14

— <보 기> —

- ㄱ. 갑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중복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의 전체 인구 중 A, B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ㄴ. (나) 지역에서 A, B 중복 수급자 수는 (나) 지역에서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非)수급자 수보다 많다.
- ㄷ.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 ㄹ. (나) 지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 지역에서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물론 7월 모의고사 15번 문항은 A 단독 수급자, B 단독 수급자의 측면에서 출제가 되긴 했으나,,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위 문항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2개인 벤 다이어그램은 확률과 통계 3점 초반대에서나 출제가 되는 매우 쉬운 유형이기에 위 문항의 정답률도 50%에 육박하지 않을까,,가 제 추측이었으나, 완벽히 빗나가 버렸네요.

사실 위 문항을 어렵게 했던 요인은 벤 다이어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 t년 대비 t+30년에 16%→8%가 된 것을 이용해 2번 선지에서 '8% 감소하였다.'로 낚시를 걸었고, 분명 이에 걸려 넘어진 학생들도 상당히 많겠죠.

8%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8%p가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8%가 아닌 50%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라는 요소는 이미 19학년도 6월 20번에 출제된 사항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가깝죠.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성 현황

자녀 세대의 A 비율은 B 비율보다는 20%p 크고, C 비율보다는 30%p 크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며, C는 B보다 높은 계층이다.

\* 갑국의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임.

\*\* %p: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임. 예를 들어, 20%는 10%보다 10%p 크다고 표현함.

정리하자면, 위 문항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려보기'
2. %p와 % 구분하기

예상치 못한 오답률을 기록했으나, 그 오답률 만큼이나 얻어갈 것 또한 많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6번

16.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였다. 하지만 의무 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대다수 사람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에 골프는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스포츠 미디어의 활성화로 인해 골프가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다.

- ① 오락 및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 ② 고급문화를 대중화하여 평균적인 문화 수준을 높인다.
- ③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 ④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 ⑤ 대중을 수동적인 문화 소비자에서 주체적 생산자로 만든다.

정답률: 76%

대중문화

대중문화를 통해 출제된 제시문 독해형 문항입니다.

두 가지 제시문을 읽고 2번 선지를 고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7번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임.) [3점]

㉠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A가 ㉡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화하고 부서 간 벽을 공고히 한다고 보았다.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여 자신이 마치 기계 부속과 같다고 느낀 구성원들은 더욱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이에 □□기업은 조직 운영 방식 B를 적용하여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원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 해결에 특화된 ㉢ 새로운 부서를 한시적으로 조직했다. 동시에 □□기업은 직원들의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사내 친목 소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려 한다.

- ① ㉠은 과업 지향적인 사회 집단이고, ㉡은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다.
- ② ㉡, ㉢과 달리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 ③ A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 의사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 ④ B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체계를 중시한다.
- ⑤ A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B는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정답률: 75%

관료제와 탈관료제 & 사회화 기관

관료제에 사회화 기관을 엮어서 출제한,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문항입니다.

그러나 판단해야 하는 지점을 친절하게 밑줄까지 그어 가며 ㄱ~ㄴ로 제시했기에, 이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A와 B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기에, 위 문항에서 크게 얻어갈 점 역시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18번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갑국에는 400여 종의 지역 전통주가 있었다. 갑국을 지배하게 된 을국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갑국의 전통주 제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자국의 재료를 들여와 직접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을국으로부터 독립한 현재까지도 갑국의 전통주는 문헌에만 존재하고 있다.
- (나) 병국 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할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전통주를 즐겨 마셨다. 병국으로 대거 귀화한 정국의 근로자들이 최근 이 전통주에 자신들이 정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섞어 마시기 시작했고, 효능이 알려지자 병국의 주류 회사가 이 술을 '○○약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 상품을 판매했다.

- ① (가)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 ② (나)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문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정답률: 77%

문화 변동

평범한 문화 변동 제시문 독해형 문항입니다.

원래 문화 변동은 제시문 독해의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는 점에서 유형의 특이성은 보이지 않으며, 24수능 14번과 같은 새로운 판단 기준 역시 보이지 않는, 매우 평범한 문항이죠.

그렇기에 위 문항에서 크게 얻어 갈 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19번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국으로 이주한 갑은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 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갑은 □□시를 상대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므로 외국인의 관리직 취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시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을 준비 중이다. 이에 A국 ㉠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시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보 기>

- ㉠.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
- ㉡.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다양한 차별을 받았다.
- ㉢.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 ㉠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A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률: 89%

사회적 소수자

13번 문항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했던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문항입니다.

위 문항을 풀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와 법의 '부당 노동 행위' 문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이 문항에서는 1심과 2심 판결, 그리고 이에 대한 갑과 □□시의 입장을 판별하기 매우 쉬웠지만, 정치와 법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당 노동 행위' 문항은 이를 교묘하게 숨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 문항에 적용되어 올해 수능에도 등장할 수 있기에, 만약 수능에 위와 비슷한 형식의 문항이 등장한다면 일단 절대 날려 읽지는 마세요.

위 문항은 9평에 처음 등장한 유형이고, 무엇보다 '9평이기에' 이번에는 봐줬지만, 수능에 가서까지 평가원이 봐줄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독해력'이 강조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 20번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1.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는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
2. A 시기는 t년 대비 t+30년으로, B 시기는 t+30년 대비 t+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A 시기와 B 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4.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감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변화 없음	감소
유소년 부양비	감소	증가

\* 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 피부양 인구 =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 ②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 ③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 ④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30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다.
- ⑤ t+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30년보다 적을 것이다.

정답률: 58%

사회적 소수자

인구 부양비 문항이지만 계산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는 형태로 출제된, 매우 특이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문항입니다.

10번 문항에서도 보이는 기조로, 이번 시험에서 도표 문항은 계산을 매우 적게 요구하는 형태로 출제된 것을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위와 같은 형태의 문항은 기출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지만 연계교재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3년 전, 22학년도 수능특강에서 말이죠.

[21022-0223]

3 표는 전년 대비 A~C의 변화에 따른 갑국의 인구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중 하나이다.)

〈갑국의 전년도 대비 각종 인구 지표의 변동 양상〉

연도	A	B	C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017년	증가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상승	㉠	하락
2018년	변동 없음	증가	변동 없음	하락	하락	㉡
2019년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증가	㉢	상승	㉣

\* 유소년 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① ㉠에는 ㉡과 달리 '변동 없음'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에는 ㉣과 달리 '상승'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2017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④ 전년 대비 2018년의 15~64세 인구 증가율은 총인구 증가율보다 작다.
- ⑤ 2017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첨부한 위 수능특강 문항을 한 번 풀어보시면, 제가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을 주장하는지 단번에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부양/유소년 인구를 구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산은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증감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 문항은 이러한 방식이 최초로 적용되어 출제된, 완전히 '신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답 선지 판별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B 시기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는 모두 감소했으나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2번 선지가 정답임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 선지 판단의 난이도와 2번이라는 정답 배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답률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답 선지의 쉬운 판단 난이도를 이에 대한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1, 3, 4, 5번 선지가 오답임을 판단하는 데에는 그리 깊은 사고가 요구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2번 선지가 옳음을 판단하지 못한 학생들도 2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글을 읽어 오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바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9번 문항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신유형이고, 무엇보다 '9평이니까' 덜 어려운 형태로 던져줬으나, 수능에서 그렇게 출제를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렇기에 위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한 수능특강 문항을 비롯한 여러 유사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통해 해결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 총평

신유형이 많았던, 그렇기에 발전될 여지가 매우 많은 시험지

이번 9평 사문은 이전까지의 9평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많은 신유형이 등장한 편이었습니다.

1, 4, 5, 7, 10, 13, 14, 15, 17, 19, 20번의 11개 문항을 신유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신유형의 상당수는 '독해력'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신유형이 아니더라도, 기존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들 역시 독해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신유형 문항과 독해력을 묻는 문항들의 상대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면 등급 컷은 말 그대로 터져나갔을 것이기에, 봐줬다는 생각 역시 매우 많이 드는 시험지입니다.

그러나 9평에서 봐줬다면 수능에서는 어떨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 문항 중 상당수가 수능에 가서는 매우 발전된 형태가 되어 등장할 것이 확실하기에, 스스로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위 신유형들이 발전해 등장했을 때의 가능세계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출 학습과 분석을 하는 이유이고, 특히나 이번 9평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죠.